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THE WEALTH GUIDE

2025 Vol.10



Part.2 노후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과 노후자금 활용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과 노후자금 활용

한화생명 김치완 노후설계 전문가
chiwan.kim@hanwha.com
(작성일 : 2025.9.30)

Summary

- ‘25.10월부터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도 일정한 조건 충족 時 생전소득 활용을 위한 유동화 가능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이며, 우선 연금형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계약을 ‘주택연금’과 같이 사전 유동화를 통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방안' 시행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 종신보험가입자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계약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해 주는 제도

- 정부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시행(금융위원회 '25.3.12일)에 따라 이번 달부터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 계약도 일정 조건 충족 時 생전소득 활용을 위한 유동화 가능 예정
- 이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종신보험 계약에 정부가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과' 하는 방식으로 시행됨. 현재 판매 중인 종신보험은 연금전환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많지만,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판매된 종신보험은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은 약 75.9만 건, 연금화 가능 금액은 약 35.4조 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만 55세 도달하는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 증가로 유동화 가능 대상은 계속 증가할 전망**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우선 5개 생보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중심으로 1차 시행 後 단계적 확대 예정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자는 최소 만 55세 시점 이후부터 신청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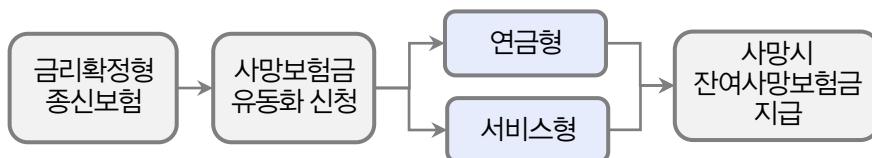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시점 만 55세 이상 계약자 (소득, 재산요건 X)
대상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보험료 납입 완료된 계약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
유동화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보험금의 최대 90%이내 신청가능 (일시금 형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불가) $\text{유동화 비율} = \frac{\text{감액된 사망보험금}}{\text{사망보험금}}$
납입보험료 초과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화 자금금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시행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고객은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
- 두 유형 모두 유동화하고 남은 재원은 계약자 사망時 잔여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구조

사망보험금 유동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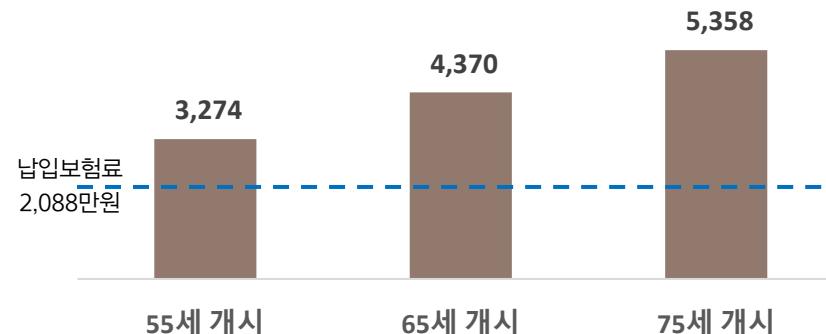
- 연금형 상품**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연간 또는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지난 20년간 매월 8.7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한 김종신씨. 올해 만 65세가 된 김씨가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했다고 가정
(* 사망보험금 1억원 계약, 70%비율로 20년간 유동화 선택)



- 김씨가 20년간 납입한 총 보험료는 2,088만원으로 65세 유동화 신청기준 총 수령가능 재원은 4,370만원으로 매월 18만원을 연금으로 수령
- 한편, 김씨가 75세 시점 유동화를 신청했다면 총 수령가능 재원은 5,358만원으로 증가하며, 이 때는 매월 22만원을 연금으로 수령
- 김씨가 설정한 유동화 비율은 70% 이므로 김씨가 사망하게 되면 잔여사망보험금 3천만원이 수익자에게 지급되고 계약 종료

유동화 개시 연령별 수령가능 금액 비교

(단위: 만 원)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서비스형 상품**은 연금형과 산출방식은 동일하나 유동화 금액을 현금이 아닌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가 제휴업종(요양, 간병, 헬스케어 등) 업체를 선정해 시행 예정
- 다만, 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한 만큼, 해당 상품은 순차적으로 출시

노후자금 활용 측면에서 보험계약대출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각각 장·단점 보유

- 노후자금 필요時 활용 가능한 ‘보험계약대출’과 비교해 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추가 이자부담이 없으며, 본인이 계획한 만큼 사망보험금 잔존 가능
- 한편, ‘보험계약대출’은 원하는 시점 원리금 상환이 가능 하며, 대출상환時 사망보험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vs 보험계약대출 비교

구분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계약 대출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이자부담 없음 • 계획한 만큼 사망 보험금 잔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리금 상환時 사망 보험금 전액 유지 • 원하는 시점 이자상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 보험금 부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이자부담 발생 • 원리금 미상환시 사망 보험금 축소 가능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재편집



제도 시행의 의의 & 소비자 보호

- 주택은 ‘주택연금 제도’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종신보험은 일부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계약을 제외하면 유동화를 통한 자금 활용에 제약이 있었음.
- 국내 종신보험 계약이 약 1,700만 건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은 종신보험계약을 ‘주택연금’처럼 사전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이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 등을 감안해 별도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 충분한 제도 안내 및 계약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판매사에 전담운영자 지정 및 해피콜 진행하며, 시행 초기에는 **대면 접수만 가능, 신청의사 반드시 자필 서명 접수** 예정
- 신청 단계에서 보험계약 유지 및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총수령액을 비교설명, **유동화 신청時 계약자(신청자) 동의 하에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유동화 신청 사실 ‘통지’** 예정
- 계약자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보장

- *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 : 계약자는 유동화금액(연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 가능
- * **사망보험금 유동화 취소권** : 판매사가 중요 내용 설명의무 미이행時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에 따른 FAQ

Q1. 종신보험이면 모두 유동화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리확정형' 계약만 대상으로 하므로 '변액 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제도 도입 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 초과) 계약 또한 적용 제외됩니다.

Q2. 기존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전환 특약이 부과돼 있는 기존 상품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이 일괄 부가 예정이므로 가입자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유동화 신청에 따른 수령액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은 기본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동화 되며,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유동화 비율(%) 및 유동화 개시 연령, 지급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 생활비 지원이 목적이므로 일시금 신청은 불가하며, 종신보험 고유의 특성을 감안해 필수적으로 사망 보험금 일부(10%)는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사망보험금이 동일한 계약이면 유동화 수령액도 같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이 같더라도 가입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달라지므로, 유동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유동화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도 가능한가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실행되는 것인만큼, 원칙적으로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은 불가합니다.

Q6. 유동화 지급기간 중 계약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동화 신청 時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에 따른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예시 : 사망보험금 1억원, 유동화비율 60%, 20년 지급 선택, 65세 개시 가정
Case 1) 20년 뒤 사망한 경우, 유동화 완료(60%)

유동화 既 지급액 3,745만원, 잔존 사망보험금 4,000만원 지급

Case 2) 10년 만에 사망한 경우, 유동화 절반(30%)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유동화 既 지급액 1,642만원, 잔존 사망보험금 7,000만원 지급

Q7. 기존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존 보험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재원으로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사망보장은 사라지는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사망보장의 일부가 유지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감액해 유동화한 자금을 수령하는 것인만큼, 수령액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필수안내사항



- 본 자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한화생명보험(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한화생명보험(주)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한화생명보험(주)에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주)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